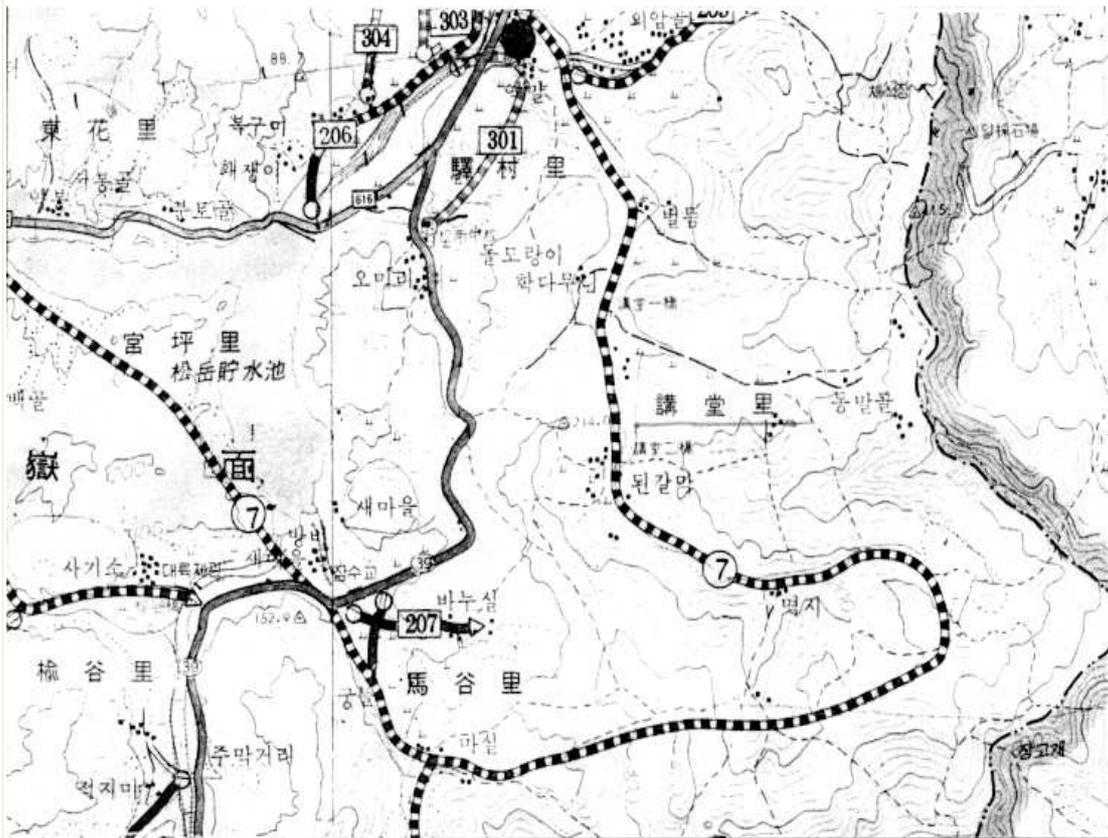


강당리·講堂里

강당리·講堂里

강당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 강당, 강당골이라고도 부르는 마을과 별뜸 마을로 나뉜다. 강당골에는 강당이라하여 이조 숙종때 외암 이간과 천서 윤혼이란 사람이 이곳에 와서 관선재를 짓고 후진들을 양성했다고 한다. 별뜸 마을은 강당 북쪽 별판에 새로 생긴 마을이며, 강당리의 인구수는 총 308명이며 가구수는 113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물이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관광명소로 근방에서는 소문이 나 있으며 마을 뒤로는 광덕산이 있어 임산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광덕산은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역이기도 하며 해발 699m로 아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평, 학동, 석우, 광골, 사곡을 병합하여 강당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강당리 위치도 >



☒ 강당골 마을, 별뜸마을(강당리)

강당 1리는 강당골 마을을 포함한 돌모랭이, 된갈막, 떡시, 절골, 학다무늬, 동막골, 어둔골, 마래골의 이루어 졌으며, 강당골 마을은 강당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영조때 이간이 강당을 짓고 후진을 양성한데에 유래된 것이며 관광명소로 외부에 소문이 나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강당골은 시원한 계곡이 있어 피서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광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이 되지 않아 깨끗하며, 돌모랭이는 마을 모퉁이에 돌이 많이 있다하여 돌모랭이로 불리워졌으며, 된갈막마을은 강당 뒤쪽의 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 되었고, 떡시는 강당 위 동남쪽 산속에 있는 마을로 미역 같은 취가 많이 있어 유래 되었으며, 절골마을은 떡시 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절이 있다하여 유래 되었고, 학다무늬는 강당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학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지명이 되었다.

강당 2리는 별뜸마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진출입을 반복하여 별

뜸이라 불리웠다 하는데 예전에는 다른 마을에서 초상이나 이곳을 지날때면 마을에서 꼭 한번 쉬어갔다고 한다.

十 외암선생문집판각

외암선생문집판각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333호이며, 지정일자는 1994년 11월 4일로 지정되었으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예안이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암선생 문집판각은 지금의 강당사 (관선제)에 있다.

아산시 송악면과 천안시 광덕면, 공주시 유구면에 걸쳐 넓게 펼쳐진 광덕산의 북쪽 골짜기 강당골에 위치해 있다. 관선제는 1707년 외암 선생이 동향인 윤, 이, 류씨등 세문중의 힘을 합해 건립하고 유학을 강론하던 소규모 서원으로 '외암서사' 하였으며,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위기에 놓인 관선제에 이를 모면키 위해 객실에 불상을 안치하고 승려를 두어 불사를 행함에 따라 "강당사"라 불렀다.

근년 보수시에 "崇禎後歲三乙酉三月十二日卯時重修上樑"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1765년(정조 8년) 중수사실이 밝혀졌고 "관선제"라는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이다. "외암집판각"이란 현판이 있으며, 장판고 안에는 "외암문집" 목판각 307매가 보관되어 있다. 후일에 증축된 문간채까지 합쳐 전체 건물은 내정을 갖춘 "ㄱ자형" 배치를 보이고 있다.

< 조사당시 강당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강당골 마을은 위도 36-42-10, 경도 127-01-30인 지역으로 위치해 있다. 강당리는 외암마을은 지나 1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약 1.5km쯤 떨어져 있다. 광덕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답다.

별뜸 마을은 위도 36-43-10, 경도 127-01-2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별뜸 마을은 외암 민속 마을에서 약 5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한 마을을 지나치게 되는데 이곳이 별뜸 마을로 민속마을과 강당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2) 현 황

강당골 마을은 인구수는 남자 110명, 여자 77명으로 총 187명이 살고 있고, 호구수는 75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벌뜸 마을은 모두 한곳에 모여 있어 벌뜸이라는 자연부락으로만 불린다. 인구수는 총 121명으로 남자 61명, 여자 60명이 살고 있고, 호구수는 38호에 이르며, 마을사람들 모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농업과 사슴 사육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강당골마을	187명	110명	77명
벌뜸마을	121명	61명	60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기 타
강당골마을	100%	95%	5%
벌뜸마을	100%	90%	10%

강당골 마을 전체 논 면적은 30.2ha, 밭은 13ha 이며, 강당골은 산속에 위치하지만, 밭농사보다는 계단식으로 논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이앙기, 관리기, 탈곡기, 예취기, 건조기가 있어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벌뜸 마을은 강당골 마을보다 평지가 많은 편이지만, 가구수는 적다. 논이 23ha, 밭 12.5ha이다. 농기계는 강당골 마을과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마을 역시 경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시설로는 노인회관을 겸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강당골마을	43.2ha	30.2ha	13ha
벌뜸마을	35.5ha	23ha	12.51ha

- 문화 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노인회관
강당골마을	1개소	1개소	-
벌뜸마을	1개소	1개소 (노인회관 겸함)	-

강당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로 볼 때 이씨 27%, 김씨 16%, 강씨 13%로 이루어졌고 다른 성씨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연령층은 60대~70대가 가장 많아 보인다.

벌뜸 마을의 성씨별 분포도를 볼 때 이씨가 가장 많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분포도를 보면 젊은층보다는 노령층으로 갈수록 두터움을 볼 수 있어 농촌의 노령화를 느

낄 수 있고 젊은층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 살고 있다.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역말에 있는 송남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중학생은 오미니 마을에 있는 송남 중학교로 통학을 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이 씨	김 씨	강 씨	기 타
강당골마을	75호	20호	12호	10호	33호
별뜸마을	38호	11호	5호	5호	17호

- 최고령자

강당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오 혜용 할아버지로 금년 90세이시고, 건강하신 편이셨다. 별뜸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 정득 할아버지로 72세이신데 아직도 농사일을 거들 정도로 건강하시다.

3) 자연 경관

강당골 마을의 형태가 가옥들이 모여 있지 않고 몇 가구씩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것이 특색이며, 이조 숙종때 외암 이간과 천서 윤혼이 관선재를 짓고 후진을 양성했다는 관선재가 있으며 용이 승천하려다 떨어졌다는 용추담 계곡이 있다. 또한 강당골은 옛날부터 물이 맑고 경치가 좋아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으며 현재 또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어 해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별뜸 입구에는 우측으로 세 아름 되는 느티나무가 있고, 강당골에 비해 경치가 좋거나 휴양지로서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뒤로 광덕산이 있어 임산자원이 풍부하다. 사말짜과 소농골이 있는데 사말짜은 옛날 말을 많이 키웠는데 등애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사를 해 버렸다고 전해지며 소농골은 산짐승이 많이 있다 하여 불려지게 된 것이다.

4) 마을의 변천과정

강당골 마을은 강당이 있으므로 강당골이라 하였고, 별뜸 마을은 본래 신평으로 불리우다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이었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평, 학동, 석우, 광골, 사곡을 병합하여 강당골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 되었다.

5) 입 향

강당골 마을의 형성년대는 외암사원 터로 보아 서기 1800년경, 약 200년전쯤으로 추정되며 현재 살고 있는 성씨로는 이씨가 가장 많으며 외암 이간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뜸마을 형성은 약 150년에서 200년쯤으로 추정되며 터를 잡은 성씨는 한씨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마을에 오래 거주한 가구가 적으며 현재는 이씨와 윤씨가 많이 살고 있다.

6) 지 명

十 강당골 마을 지명

·강당골 : 강장리 으뜸가는 마을. 영조 때 이간이 강당을 짓고 후진을 양성한데서 지어진 이름.

·돌모랭이 : 별뜸 서쪽에 있는 마을. 마을 모퉁이에 돌이 많음.

·된달막 : 강당 뒤쪽에 된 지대에 있는 마을.

·떡시 : 강당 위 남동쪽 산속에 있는 마을. 미역 같은 취가 많이 있음.

·절골 : 떡시 위 동쪽에 있는 마을. 전에 절이 있었음.

·학다무니 : 강당 아래쪽에 있는 마을. 학이 있었음.

·천마봉 : 강당 뒤에 있는 산.

·이마당 : 떡시 뒤에 있는 골짜기.

·병목안 : 이마당 위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병목처럼 되었음.

·소먹은 편던 : 병목안 위에 있는 골짜기와 편던.

·용추 : 떡시 아래 냇가에 있는 못. 옛날에 용이 올랐다 하는데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므로, 바위에 "산고무이 동심화양" 여덟자를 새기었는데 일인들이 "동심화양"의 글자를 거꾸로 따서 양화당이라 하여 널리 선전하였음.

·외암 서원터 : 강당 뒤에 있는 외암 서원터. 영조 때 학자 이간과 윤혼이 관선재를 짓고, 후진들을 교육하였는데 순조 때 외암서원으로 하고, 이간과 윤혼을 배양하였다가 고종 5년(1868)에 헐리고, 현재 강당사가 되었음.

·강당(관선재) : 용추 위쪽에 있는 강당. 영조 때 학자 외암이 이간과 천서 윤혼이 관선재를 짓고 후진들을 교육하였음.

·강당사 : 강당에 있는 절. 관선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절을 지었음. 강당과 강당사도 붙어 있음.

·광덕산 : 천안군 광덕면에 접한 699m의 산으로 잘 다듬어진 등산로가 나 있다. (등산로 □ 떡시 - 마리골 - 만인의 숲 - 이마당 - 약수터 - 정상 □ 떡시 - 어둔골 - 장군약수터 - 장군바위 - 정상)

十 벌뜸마을 지명

·벌뜸 : 강당 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

7) 전 설

十 용추당 전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에는 용추당의 깊이가 명주실 타래 3개가 다 들어가도 끝이 없었다는 말이 전하며 지금으로부터 500년전 도를 닦던 천년 묵은 뱀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데 마을 임산부가 승천하는 용을 보자 부정이 타서 용이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곳을 용이 떨어져 죽었다 하여 용추담이라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十 절골의 전설

옛날부터 닭만한 금덩이가 나오면 그 마을이 화를 입게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절골에서 닭만한 금덩이가 나와 조화 찬란한 빛과 함께 한해에 9채가 화재를 당하였다하여 금너덜이라 전해 내려오고 있다.

十 양화담에 전설

강당리 아래 냇가에 있는 못으로 옛날에 용이 올라갔다 하며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므로 바위에 "산과 무이 동심 화양" 여덟자를 새기었는데 일본인들이 "동심화양"의 글자를 거꾸로 따서 양화담이라 하였다.

十 강당사 절의 유래

송악면 강당리에는 강당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원래 서원이었다고 한다. 이 서원에서 유생들이 밤낮없이 글읽는 소리가 이 골짜기를 퍼져 흘렀으며 이로 인해 강당골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서원을 철폐했던 일이 있다. 그 때 나라에서 보낸 군졸들이 강당리에 있는 서원을 철폐하려고 내려올 때 서원에 있던 유생들이 광덕사에 있는 부처님을 모셔다 놓고 머리를 깎은 다음 목탁을 두드리며 임시적이거나 스님의 흥내를 낸 것이다. 군졸들은 모두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서원은 되돌아 오지 않고 그냥 절로 정착하여 현재 강당골에 있는 강당사가 되었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강당골 마을에서 정월 삼일, 사일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삼일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큰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를 지내고, 사일 아침에는 벼락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를 올리고 있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계조식으로 연반계가 있어 마을 초상시 서로 돕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벌뜸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통놀이는 없으며 음력 2월 4일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마을고사를 지내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윤혼은 외암 이간 선생과 함께 학자로서 윤혼이 처음 관선제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으며 순조때 외암서원으로 하고 이간과 윤혼을 배양하였다가 고종 5년 (1868년)에 헐리고 현재 강당사로 됨.

十 윤혼 (尹筓: 1676~1725)

자는 회보요, 호는 천서이며, 본관은 파령이나니, 참판을 지낸 매음근의 현손이다. 수암의 문이능로 경종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벼슬을 했다. 학문이 크고 깊어 낙론을 주장했고 강문 팔학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되었다.

十 심서웅(沈瑞雄: 이조)

본관은 청송(靑松), 안효공 온의 후예(後裔)이다. 온양군 남상면(현 아산군 송악면 지역) 석우리(石隅里)에서 살았는데 효동(孝童)이라는 칭찬(稱讚)을 들었다 부친이 병들어 꿩고기와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므로 걱정하는 중인데 갑자기 꿩이 방안으로 날아 들어왔고 다리 위로 뛰어오르는 이상한 일이 나타났다. 일향(一鄉)의 사람들이 승의(暗行御史)에게 수차 이 사실을 말하여 민계기년(愍癸己年)에 급복(給復)되었다. <新定牙州誌>

10) 종교단체

절골이란 마을에 기독교 단체인 기도원이 있는데 이 안에 강당 교회가 하나 있고, 신도수는 8명으로 나타내며, 좀 더 내려오면 덕수암이란 절이 있고 신도수는 10명, 강당사는 신도수가 50명이 된다.

별뜸 마을에는 종교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마을에 인접한 송악 감리교회와 순복음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11) 공장현황

마을에는 공장은 없으며, 계곡이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상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12) 마을의 특성

강당골 마을에 차령산맥의 지류인 광덕산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강당골은 수목이 울창하고 옥류와 맑은 공기 그리고 기암괴석(奇巖怪石)으로 되어 봄, 여름, 가을에 소풍(逍風)오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피서(避暑)를 위해 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다. 이로 인해 깨끗한 계곡은 많은 훼손을 가져오고 있으며, 조용하고 살기 좋던 곳이 손님들을 끌기 위한 음식점들이 계곡에 즐비하게 늘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물론 관광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앞장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손님을 맞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별뜸 마을은 그리 크지 않고, 옹기종기 움집하여 있으며, 외암민속마을과는 불과 500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던바와는 달리 서로간의

정이 풍부했고, 애경사시 자기일처럼 돕는 넉넉함이 있었다.